

부모간의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이 영 미(천안대 강사) · 민 하 영(대구가톨릭대 교수) · 이 윤 주(대구가톨릭대 교수)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사회적 교류의 확장으로 부모자녀간 관계가 재구성되는 시기(Windle, 1992)로 부모나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이 기대되고 가족 관계보다는 학교나 학업, 이성과 친구, 직업 세계가 주요 관심 영역으로 부각된다. 따라서 청소년 후기에 접어든 대학1,2학년에게 부모나 가족의 의미는 그 어떤 발달단계보다 낮게 평가되기 쉽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관계이며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대학1,2학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가족은 여전히 의미있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학1,2학년생의 심리적 불안과 행동적 공격성향 및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부모의 역할 및 가족 과정(Family process)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과정 변인이 청소년 후기에 접어든 대학 1, 2학년생의 불안이나 공격성향 그리고 대학생활적응과 같은 심리사회적 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가?, 부모간 갈등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기초해 구분된 가족유형은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청년후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대학1,2학년 287명(남자, 107명, 여자 18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부모간 갈등 척도(17문항),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8문항), 내재화된 문제행동 척도(불안: 7문항, 공격 성향: 9문항), 대학생활적응 척도(26문항)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의 빈도분석, 평균, Pearson's Correlation, 일원분산분석, Scheffé의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 갈등은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불안: $r=.20$, $P<.001$, 공격 성향: $r=.30$, $P<.001$, 대학생활적응: $r=-.22$,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 통제 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의 상관관계는 사라지거나 감소했다(불안: $r=.09$, 공격 성향: $r=.22$, $P<.001$, 대학생활적응: $r=-.08$). 한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불안: $r=.28$, $P<.001$, 공격 성향: $r=.27$, $P<.001$, 대학생활적응: $r=-.35$,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부모간 갈등 통제 시에도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유의한 상관계수를 유지했다(불안: $r=.22$, $P<.001$, 공격 성향: $r=.16$, $P<.001$, 대학생활적응: $r=-.29$, $P<.0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부모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자체보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질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받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은 가족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불안: $F_{3,268}=15.46$, $P<.001$; 공격 성향 $F_{3,268}=8.65$, $P<.001$; 대학생활적응: $F_{3,258}=9.75$, $P<.001$). 부모간 갈등이 높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한 가족안에서 생활하는 대학생은 부모간 갈등이 높고 부모자녀가

의사소통이 개방적인 또는 부모간 갈등이 낮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지 못한 또는 부모간 갈등이 낮고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높은 가족안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보다 높은 불안과 공격성향 그리고 낮은 대학생활 적응을 나타냈다.

셋째,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간 갈등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나(불안: $\beta=.19$, $P<.001$, 공격성향: $\beta=.29$, $P<.001$, 대학생활적응: $\beta=-.22$, $P<.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통제시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안: $\beta=.09$, 공격성향: $\beta=.19$, $P<.01$, 대학생활적응: $\beta=-.09$). 이는 대학생의 불안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의해 매개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격성향은 부분 매개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간 갈등이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과정 요인이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여전히 의미있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을 중재할 만큼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 또한 영유아기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만큼이나 부모교육의 대상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